

세월호 유족 “못 잡았나 안 잡았나”... 구원파 신도 “유병언 아니다”

변사체 발견 반응

시민들 “의문점 여전히 많아”

네티즌들은 각종 음모론 제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지난 21일 공식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월호 피해 가족과 구원파 신도 등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시·도민과 세월호 가족, 네티즌들은 “잡으려고 애는 썼느냐”며 수사 기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드러낸 반면, 구원파 신도들은 “믿을 수 없다”며 다소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가족 반응=22일 진도실내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유 전 회장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직후 “유병언 진짜 맞아”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일부 유가족은 유 전 회장 뉴스를 애써 외면하면서 통신 지원 차량에 설치된 수상기로 메이저리그 류현진 등판 경기를 시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무관심은 유 전 회장을 비호하는 세력이나 수사 기관에 대한 원망·불신에서 나온 것으로 보였다.

한 실종자 가족은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다는 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는데 어차피 안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실종자 가족은 “유 전 회장을 산 채로 잡았으면 감옥 갈 사람들이 더 많았을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시·도민과 네티즌들의 반응=시·도민과 네티즌들 대다수는 “유병언 맞아”라며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검·경의 수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모(37·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검·경이 아무리 유병언의 시신이 맞다고 주장하더라도 난 믿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유 전 회장을 잡으려고 한 것은 맞는지, 장기간 붙잡지 못하면서 또다른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엔 검·경의 수사를 비교하면서도 이들의 발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네티즌들이 다수를 이뤘다. 네티즌들은 “사체 발견 조희팔 사건과 묘한 관계”, “사체가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빨리 부패될 수 있냐”,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 “유병언 사체 발견, 진실일까?”, “의문점이 너무 많아 유병언의 사체라고 믿을 수 없다” 등의 의문을 표했다.

◇구원파 신도들 반응=구원파 측은 이날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5월 25일 검찰 수사팀이 순천 별장을 급습해 도피를 도왔던 여신도를 체포했을 때까지만 해도 유 전 회장이 살아있었다면서 이후 2주 만에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게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태종 구원파 대변인은 시신 발견 당시 주변에 막걸리 등 술병이 흩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유 회장은 술을 전혀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시신 발견 후 한 달이나 지나 발표하는 것도 상황에 맞지 않다”며 “유 회장은 키가 작아서 한눈에 봐도 구별이 가능하다. 변사체와 외모가 달랐다”고 주장했다. 구원파 측은 DNA 분석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따로 기자회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진도=백희준 수습기자 bhj@



세월호 가족 단식농성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청해진해운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묵묵히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 변사체 발견 당시 상황 및 의문점

발견일: 6월12일
하늘을 바라보고 반듯이 누운 모습. 반백골화 80% 진행된 상태로 발견. 외견상 타살 혐의 없음.

신촌리 매실밭

- 영양이 빠진 일부 폐어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 의뢰한 결과 유병언으로 확인됨
- 오른쪽 집게손가락 지문, 열 가열법 이용해 채취, 유씨 지문 최종 확인
- 금니 10개
- 겨울 점퍼
- 방거지모자
- 가시편히 벗어서 발견된 더러워진 흰색 운동화
- 나무지팡이
- 구원파 계열사 제조 스퀘어알렌 병
- 손잡이 암말로 묶어 있었음
- 가방 속 러닝셔츠 한벌, 스우 2병과 막걸리병 등
- (천 가방 안쪽에 새겨진 '곰같은 사랑' 글자, 유씨가 쓴 책제목과 일치)
- 천가방

정형상 풀리지 않은 의문들

- 1. 부패정도**
지난 5월 25일 순천 송치재에서 덮여있던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
- 2. 가방 속 술병**
유씨는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방 속에서 술병 발견
- 3. 주변 배회 노숙자**
방거지에 검은 바버리 차림으로 배회하는 노숙자를 자주 목격했는데 최근 보지 못했다는 주민들 증언
- 4. 구원파 신도의 도움**
구원파 신도 등의 보호를 받으며 도피생활 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왜 아무도 없는 밤에서 죽어갔나?

자살이냐 타살이냐 자연사냐

사망 원인 의견 분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2일 순천경찰 등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시신은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 신촌부락 박모(77)씨의 매실 밭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뼈가 드러날 보일 정도로 반백골화가 80% 가량 진행된 상태였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무연고자로 보고 족타의를 통해 부검을 진행했지만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경찰은 유 전 회장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뒤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

지 않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유류품에서 현금·휴대전화(대포폰)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 전 회장이 입고 있던 두꺼운 겨울용 점퍼가 외부 충격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전 회장이 비관적인 심정으로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추종자들이 독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령인 유 전 회장이 고혈압·당뇨 등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피 중 건강이 악화하면서 자연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순천=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10여일만에 시신 반백골화 되긴 어려워”

전남대 의대 박종태 교수

“부검으로 사인 규명 힘들 것”

유병언 전 세월호 회장의 사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반백골화된 시신의 부검만으로는 명확한 사인을 가려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대 의과대학 법의학고실 박종태(55) 교수는 22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반백골화된 시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신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고 전제해 뒤 “집승이나 곤충 등에 의해 시신이 많이 훼손됐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같은 요인들이 전부 사라졌다면 명확한 사인을 가려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서 “DNA를 확인하는데 걸리는데 통상 2주, 치아는 2~3주, 대퇴부는 4주 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는 부패 상태가 심한 것과 관련해서 “사망 추정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기후만은 10일 가량 지난 시신이 반백골화는 되긴 어렵다고 본다”며 “들집승이나 들쥐, 지네 등에 의해 훼손됐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리할 듯

재산 환수·자녀들 사법처리는 계속

수사 어떻게 될까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3개월간 숨가쁘게 달려온 검찰 수사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죽음이라는 영동한 결말을 맞았다.

유씨에 대한 수사는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를 씨줄로, 세월호 증축 과정에 관여해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날줄로 엮어 진행됐다. 아직 유씨의 자녀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지만 ‘정점’에 있는 유씨의 죽음으로 검찰 수사는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묻는데는 상당부분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씨 일가 2000년대 횡령·배임·세월호 증축 지시도=세월호 참사 직후 발족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에 조정을 맞췄다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중 2차장검사)은 유씨 일가의 경영 비리에 칼날을 들이댔다. 검찰이 밝혀낸 유씨 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혐의의 규모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2400억원이다. 개인별 혐의 액수는 유씨 1291억원, 장녀 삼녀(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유씨 ‘공소권 없음’...자녀들 사법처리 가능성=검찰은 유씨 일가의 혐의 입증은 자신했지만 이들이 검거망을 피해 모두 잠적하면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유씨가 두달여가 넘는 도피 끝에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유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국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수사가 유씨는 물론 일가 대부분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자녀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남 대균씨는 유씨와 마찬가지로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채 잠적해 현재 검·경이 1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남 혁기씨와 장녀 삼녀씨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위장병, 반복할 것인가?

지긋지긋 반복되는 위장병! 시도 때도 없이 괴로운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에 오해 내내 별다른 처방과 답답함, 신트림 등... 위장병은 왜 반복될까요?

문제는 바로 위장막! 손상된 위장막은 반복되는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병은 위장막부터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베진으로 회복할 것인가!

지긋지긋한 위장병을 개선시키는 4가지 효과! 새로 나온 카베진코와 S정

- MMSC 성분으로 위장막 회복 효과
- 재산성분 배합으로 위산 자극 완화 효과
- 침출건조엑스 함유 위 운동 촉진 효과
- 리파제 AP12의 소화 작용 촉진 효과

카베진코와 S정의 2중정 작용

위장병을 회복할 땐 **카베진코와 S** 정

위장막 카베진코와 S MMSC 위장막 수복효과 진위생약 장출건조엑스 소화효소 리파제AP12 100정 [일반의약품]

양배추 유래 성분 MMSC의 위장막 회복 효과! 카베진코와 S정은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위장막을 회복시키고 위장병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킵니다

*MMSC(메틸메티오닌설폰화합물)란? 양배추 추출물의 황소화합물인 시메틴, 배타민, 나리코드, 플라비, 위장막 수복 효과와 긴 장에 대한 개선효과 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 Jpn Pharmacol Ther(약리와 치료) 35(1), 41-49(2007)

오중과 핵종의 2중정제 순차적으로 방출되어 각 성분이 위장병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복산성 성분의 위통, 속쓰림, 신트림, 구취, 소화효소의 소화장애, 위염, 위궤양 등의 증상 완화 + MMSC의 위장막 회복